

#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론 연구

김 경 복\*

## 目 次

- |                                |                           |
|--------------------------------|---------------------------|
| 1. 서 論                         | 3. 1950년대 모더니즘 시론의<br>특질  |
| 2. 1950년대 모더니즘 이론의<br>형성과 그 배경 | 3-1. 전통 부정론               |
| 2-1. <신시론 동인>의 활동              | 3-2. 주지적 이미지즘             |
| 2-2. <후반기 동인>의 형성과<br>모더니즘 운동  | 3-3. 데뻬이즈망의 미학과<br>몽타지 기법 |
|                                | 4. 결 論                    |

## 1. 서 論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검토는 이제 상당한 위치에까지 와 있지 않나 싶다. 문덕수,<sup>1)</sup> 서준섭<sup>2)</sup> 등의 글을 비롯한 수많은 논문, 저서 등이 이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대다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논의는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던 30년대 상황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의 전개 발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30년대에 서구로부터 도입돼 5,6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와 맹렬한 기세를 떨치고 있음을 볼 때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 연구 방향은 너무 편향적인 것이다. 오늘의 문학과 관련지어 볼 때 5,6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검토는 모더니즘 문학의 발전사의 한 과정을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모더니즘 문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30년대 도입 상황과는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글은 5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특질과 의의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면 관계상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을 가장 잘 집약해 보여주는 시론을 연구 대상으로 고찰하되, 그 중에서도 모더니즘 문학을 전면에 표방했던 〈후반기 동인〉<sup>3)</sup>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삼는다.

50년대 후반기 동인에 대한 주의는 몇 명의 선행 연구자들에게 있어 왔다. 오세영,<sup>4)</sup> 장윤익,<sup>5)</sup> 이견청<sup>6)</sup> 등이 단편적으로 후반기 동인의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을 밝히고 있으며, 홍정운,<sup>7)</sup> 최유찬,<sup>8)</sup> 문혜원<sup>9)</sup> 등이 그나마 종합적으로 이를 밝혀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후반기 동인에 대한 문학사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모더니즘 문학의 미학과 세계관, 더 나아가 역사적 발생

- 
- 1)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시문학사, 1981.
  - 2)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 3) 후반기 동인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의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1951년 판난지 부산에서 김경린, 조향, 박인환, 김차영, 이봉래, 김규동 등 6명이 조직한 것으로 보며 여기에 김수영, 양병식과 이한직도 관련돼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후반기 동인에 직접 가담은 안했지만 전봉진, 박태진, 김춘수 등은 후반기 동인과 시적 지향을 같이해 후반기 동인의 방계 시인으로 잡기도 한다. 위에서 김수영은 그때 반공포로 수용소에 있어 직접 참가하지 못하지만 이 후반기 동인이 1949년 김수영이 참가했던 〈신시론〉 동인의 발전임을 고려할 때 김수영도 자유인으로 거기에 있었다면 참가했을 것이라는게 동인들과 논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넣는 게 사실 자연스러울 것 같다. 후반기 동인 구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오세영의 다음 글을 참조할 것.
  - 4)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문학사상」, 1981.1.
  - 5) 장윤익,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성격, 「문학이론의 현장」, 문학예술사, 1987.
  - 6) 이견청, 후반기 동인과 모더니즘적 추구, 「한국학 논집」, 제6집, 한양대 한국학 연구소, 1984.
  - 7) 홍정운, 후기 모더니즘 시론, 「신년의 언어와 예술의 언어」, 오상출판사, 1985.
  - 8) 최유찬, 1950년대 비평연구(1),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 9) 문혜원, 전후 모더니즘 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試論, 「관악어문연구」, 제1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동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50년대 모더니즘론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인용으로 인해 선택적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5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표방한 <후반기 동인>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당대 모더니즘 이론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5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특질과 그 사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과 이론이 동시적으로 병행,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만 이론 자체에서도 당대의 문학적 현상과의 의의를 밝힐 수 있음을 믿고 논의를 출발한다.

## 2. 1950년대 모더니즘 이론의 형성과 그 배경

### 2-1. <신시론 동인>의 활동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은 1949년 「새로운 都市와 市民들의 合唱」을 낸 <新詩論> 동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신시론 동인은 40년대 문학의 암흑기와 해방공간에서의 좌익 이데올로기 문학, 자연예찬의 청록파 문학에 식상한 일부 문학인들, 즉 김경린, 김수영, 박인환, 임호권, 양병식 등이 모여서 현대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내용을 시에 담아보자고 천명한 단체다. 이들의 활동은 전쟁으로 중단되고 그 활동의 본질은 전쟁중 부산에서 결성된 <후반기 동인>에 계승된다. 따라서 신시론 동인은 후반기 동인의 전주곡에 해당한다.

이들의 등장은 30년대 모더니즘이 감상적 낭만주의와 편내용주의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sup>10)</sup>하였다면, 저속한 리얼리즘과 전통 서정주의 문학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低俗한 <리얼리즘>에 對抗하기 爲하여 출발한 現代詩는 또한 偶然하게도 놀라운 速度를 갖고 온 地球에 傳波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病理學的인 生理를 內包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마치 新세대의 빛갈처럼 현대인의 지성에 자극을

10)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시론」, 백양당, 1947, p. 74.

주는 바가 되어 어두운 나의 세계에도 滲透해 왔든 것이다……(중략)…… 우리의 많은 先輩들도 자기 스스로가 <모더니스트>임을 자처했고 또한 <아방 갈트>임을 자랑하였으나 그들은 너무나 強한 현실의 抵抗線을 넘어 新領土를 개척하지 못하였기에 詩의 國際的인 발전의 <코스>와는 정반대의 방향에 기울어져 가고 말았든 것이다. 그러나 物理的, 化學的 그리고 精神的 등의 세계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듯이 시의 세계도 하나의 歷史的인 <코스>를 향하여 發展하여 가고 있는 것이 罔연한 사실이다……(중략)……詩는 결국에 있어서 前進하는 思考인 것이다.<sup>11)</sup>

나는 不毛의 文明資本과 思考의 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市民精神에 離反된 言語 作用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

資本의 軍隊가 進駐한 市街地는 지금은 憎惡와 안개진 現實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낸날 노래하였던 植民地의 哀歌이며 土俗의 노래는 이러한 地區에 가란져간다.

그러나 永遠의 일요일이 내 가슴 속에 찾아든다. 그러한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과 시의 산책의 발을 옮겼던 郊外의 原始林으로 간다. 風土와 個性과 思考의 自由를 즐기던 詩의 原始林으로 간다.<sup>12)</sup>

위의 첫 번째 김경린 글과 두 번째 박인환의 글에서 신시론 동인의 등장 이유를 알 수 있다. 김경린의 글에 따르면 현대시는 저속한 리얼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고 그것이 병리학적 생리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지성에 자극을 주고 국제적 발전의 코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현대시는 김경린에게 있어서는 전진하는 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모더니즘 시의 생성은 역사적 발전 법칙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인식이다. 박인환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식민지의 애가이며 토속의 노래, 그것은 일제하 감상적 낭만주의 시와 전통 서정주의 시를 말함이었는데 이러한 시들은 오늘의 사회 현실에 가라앉아갈 뿐이고 오늘의 현실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즐기던 시일 따름이다. 박인환이 인식하고 있는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시는 현대성을 담지해 낼 수 있는 시, 다시 말해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모더니즘 시를 의미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이렇게 볼 때 신시론 동인은 모더니즘 운동의 등장 이유를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필연적 소산과 국제적 문학 발전 과정에 부응하기 위한 것,

11) 김경린,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1949, 서문.

12) 박인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상동, p. 53.

현대인의 병리학적 의식을 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가 문명의 비극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 정신이 황폐화해져 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신시론의 특징은 30년대 개별적 모더니즘 운동을 지양하고 집단적 운동으로 과도기적 혼란한 시대상을 그들의 시에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며<sup>13)</sup> 새 문명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시론 동인은 49년 詞華集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한 것을 끝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활동을 못하다가 피난지 부산에서 후반기 동인으로 발전적 해체, 수렴된다. 이들의 신시 운동은 그 방향에 있어서 아직 구체성을 담지해 내지 못했고 역사적 전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피상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역사적 변화에 대한 문학의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서 신시론 동인의 이념과 운동은 후반기 동인의 형성에 직접적 動因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로 계승된다.

## 2-2. <후반기 동인>의 형성과 모더니즘 운동

신시론 동인의 운동이 후반기 동인의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보다 더 깊이 후반기 동인의 형성을 부추긴 것은 6.25동란으로 인한 역사적 한계의식이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문인들에게 단절과 폐허, 불안, 공포 등의 인식을 낳게 하고 이에 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한 예견보다는 현실에 있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의 문제에 보다 깊숙이 침윤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파괴와 불연속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문학 양식이 그들에게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50년대 문단을 풍미한 모더니즘 문학이다. 이러한 문명 파괴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대응의 필요성과 불연속적 세계관을 공동으로 지닌 한 때의 문학자들이 모여 조직한 것이 <후반기 동인>이다. 따라서 후반기 동인의 발생 근거에는 문학 자체의 내적 動因도 있었고 문학 외적 원인도

13) 홍정운, 앞의 책, p. 189.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반기 동인을 이루는 사람들은 앞의 주3)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박인환, 김경린, 김규동, 김차영, 이봉래, 조항 등 6명이 주멤버고 그의 김수영, 김종문, 박태진, 전봉진 등도 후반기 동인의 방계시인으로 간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규합할 수밖에 없음을 김규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쟁이 우리들로 하여금 「에리언」의 荒無地와 「까귀」의 절망의식과 「샤르트르」의 虛無로부터 무정부상태의 세계로 漣이온 그러한 황막한 공간에 부딪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시의 현실에 있어서 우선 나설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갖춘 계급은 지난 날에 있어서의 저 상징주의의 淡淡한 기분의 滋養과 超現實의 모든 실험이 보여준 무의식과 꿈의 세계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나 혹은 입체파시운동을 유심히 다루고 검토하여 온 세세대가 나온 모더니즘의 시인들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운 시인들에게 역사는 그들의 노래부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의 「모더니스트」들은 참다운 시의 영토를 戰爭 二年의 폐허 속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sup>14)</sup>

김규동의 언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 땅의 모더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전쟁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50년대 우리나라 모더니즘 운동은 전쟁이 가져온 불안과 폐허의 병리학적 세계, 즉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휴머니즘의 모색에 그 근본 정신이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태의연한 자연 예찬의 시, 즉 40년대 후반과 50년대 벽두에 유행한 청록파류의 시 경향이다. 이러한 시 경향은 현실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화된 새 시대의 인간상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 동인의 출발은 이러한 청록파류의 시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발전하여 온 현대시는 더우기 현대의 부조리한 사회의 생활 요소 속에서 體得되는 경험의식을 具象化하기 위하여 종래의 자연과 시인들이 일삼아 왔던 平板의인 기술 방법에 의한 대상의 寫實化 또는 甘味한 언어와 음률에 의한 대상의 표현화의 방법에 불만을 표시하게

14) 김규동, 「새로운 시론」, 산호장, 1959, pp. 151~152.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15)</sup>

그러나 우리는 청록파의 그 어느 작품에서도 芝蔴詩가 창조해 놓은 언어의 부드럽고도 함축있는 비단결 같은 감촉과 담담한 향기와 어느 정도 시각적인 빛깔을 목격할 수 없음을 알고는 적지 아니 실망하는 바다.

청록파의 언어가 가지는 영상은 항상 자연과 눈물과 安價한 이별과 아무 것도 아닌 신비의 그것인 경우가 많았다. 즉 이것은 18세기로부터 19세기 前半에 이르는 낡은 전통의 그것으로서 시에 있어서만 가장 자연스러운 세계 내지는 풍토인 동시에 「하바트 리드」의 말한 바 감상적 낭만주의에 불과한 감정 편중의 주관적 시각 태도인 것이다.<sup>16)</sup>

위의 김경린의 글에서 현대시는 자연과 시인들의 표현방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밀의 김규동의 글에서 청록파의 시가 가장 자연스러운 세계 내지 풍토로서 감상적 낭만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속에는 현대시는 자연적 세계를 시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평면적인 사실화, 즉 소박한 리얼리즘 수법으로는 현대인의 의식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의식을 보다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초현실주의 기법이라든가, 주지주의적 태도가 요청되고 그 시적 대상에 있어서도 문명적, 도시적 사물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 선상에서 후반기 동인의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세계관은 시가 역사와 함께 변화, 발전해 간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여 조향은 “여태까지의 시란 「進歩」만 해 왔으나 二十世紀의 시는 「進化」를 했다. 진보는 「수정」이고 진화는 「혁명」이다.”<sup>17)</sup> 라고 하여 현대시의 반전통성이 혁명적임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형성은 역사적 필연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대 사회현실에 가장 잘 반응하는 문학양식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당시대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간성, 불안한 세계의 위기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종래 서정주의 문학 또는 자연주의 문학으로는 담아내지 못하고 모더니즘 문학만이 새로운

15) 김경린, 현대시의 諸問題, 「문학예술」, 1957.3, p. 182.

16) 김규동, 앞의 글, pp. 152~153.

17) 조향, 시의 발생학, 국어국문학회 제16호, 「전후 한국 문예시집」, 신구문화사, 1961, p. 420.

시대 정신을 노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우리는 새로운 시정신의 발견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물굽이 속에 찾아서 끊임없는 모색을 해왔으며 또 이러한 예리한 시대의식을 통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질서와 새 미학을 구축코자 노력하여 왔다. 김규동, 앞의 책, p.28) 이러한 주장은 30년대 모더니즘 운동이 새로운 도시문명에 대한 단순한 <신기성>, 또는 표현방식에 있어서 이미지즘의 미숙한 <곡예성><sup>18)</sup>을 보여준 데 대하여 극복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30년대 모더니즘 운동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50년대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등장은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문명세계의 적합한 문학양식으로서, 그리고 전란으로 인한 위기 의식에 대처할 수 있는 문학양식으로서 그 기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더니즘 정신이 가장 현대의 시대정신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점으로 집약, 설명할 수 있겠다.

### 3. 1950년대 모더니즘 시론의 특질

#### 3-1. 전통 부정론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지적 세계관이 소박한 리얼리즘이나 서정주의 시풍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함으로써 가장 먼저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에 논의되는 것은 **반전통의식**이다. 이 말은 앞에서 보았던 청록파류를 비롯한 생명파, 낭만주의, 카프 계열의 리얼리즘 시 모두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의 도래를 주장하는 의미이다. 이때 새로운 시의 도래는 시의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 단절에 해당한다. 그것은 곧 전통 부정론이다.

이 전통 부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전통시로서는 현대적인 것의 본질, 즉 모더니티를 담아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때 현대적인 것, 즉 현대성은 현대 문명에 의해 발생하는 문명 파괴성 또는 병리학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대성을 담지 못하는 전통시는 모더니즘론자들에게는 무용한 대상일 뿐이다.

18) 박인환, 현대시의 변모, 「신태양」, 1955.2, p.222.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과거의 문화적 소산은 현재에 반영되어 그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요소로서의 전통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의 비평문학에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의 전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비평문학이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결론은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한국문학 자체가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뜻이다.<sup>19)</sup>

이봉래의 이 언급은 극명하게 50년대 모더니즘론자들의 전통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T.S.엘리엇의 전통 개념으로써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간접하는 가치이다. 즉 과거의 가치판단과 현재의 가치판단이 동시적으로 놓여 과거의 가치판단이 현재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 과거의 가치판단을 전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의 문학적 가치나 질서가 현재의 문학적 가치나 질서에 영향을 줄 때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봉래는 “우리들은 그러한 고전에서 우리의 문학적 유산이나 문학정신이나 또는 문학적 영향이나 하는 것을 조금도 물려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sup>20)</sup>라고 하여 문학적 전통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단절의식은 조항이 현대시를 <진보> 개념이라 아니라 <진화> 개념으로 정의하게 만들었고, 김규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견이야말로 우리들 현대에서는 시인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sup>21)</sup>고 하여 모더니즘론자들에게 과거에서 이어오는 전통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통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게끔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전통 부정론은 모더니즘 자체가 전통을 부정하고 권위에 저항하는

19) 이봉래, 전통의 전체, 「문학예술」, 1956.8, p. 150.

20) 이봉래, 상동, p. 151.

한편 모더니즘론자는 아니면서 이어령은 50년대의 문학을 이러한 전통 단절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화천민 지역>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참조.

21) 김규동, 앞의 책, p. 29.

22) 이 새 전통의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50년대에 많이 논의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대론>이다. 즉 새로운 문학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옛 서정주의시에 물든 구세대들이 아니고 현대성을 인식하고 문학적 방법을 새로이 자각한 신세대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봉래, 「신세대론」, 문학예술, 1956.4. 참조.

정신이 있는 만큼 30년대 모더니즘 운동에서도 그 경향은 나타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문화가 불모화된 50년대에 보다 더 집중적이고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는 점에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특징이 놓여 있다.

### 3-2. 주지적 이미지즘

전통논의와 더불어 활발히 논의된 것은 시의 창작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30년대의 모더니즘과 동일한 연장 선상에서 다루어진 듯해 보이는데 50년대 모더니즘론자들도 시의 자연발생적 토로를 거부하고 인위적, 의도적 계산하에 시가 제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시인의 지성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현대 문명의 복잡성을 종래 시가 가지는 정관이나 영탄이 아닌 분석과 비판으로 형상화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태도는 30년대 김기림의 시작법에도 나오는 것으로 T.S.엘리어트, T.E. 홉 등의 영미 주지주의 비평방법을 원용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지적 태도는 시의 기법에 있어서 종래 서정주의 시가 중시하는 음률이 현대성을 담아내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보고 파악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조형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강조한다.

그러면 시는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존재해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것은 지어져야 할 것인가. 시의 방법—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영상의 세계라야만 할 것이다.<sup>23)</sup>

현대에 이르러서 시가 음악적인 뭉툭성이 갖어 오는 불투명한 <이미지>에 만족하지 않고 회화적인 선명한 <이미지>의 세계에 관심을 표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는 현대에 이르러서의 모든 사회적 현상의 변모가 인간으로 하여금 조형성에 접근케 하여 왔으며 그의 결과로서 예술분야에 시각적인 세계에의 관심의 집중을 갖어오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24)</sup>

「말」의 구성에 의하여 특수한 음향(운율이 아니다)이라든가 혹은 활자의 배치에서 오는 시각적인 효과 등, 「말의 예술」로서의 기능의 면에다가 중점을 두는 이른바 현대시.<sup>25)</sup>

23) 김규동, 앞의 책, p. 32.

24) 김정린, 현대시의 이미지와 메타포어, 「자유문학」, 1957.6, p. 122.

25) 조향, 데뷔이즈망의 미학, 「한국전후 문예시집」, 신구문화사, 1961, p. 417.

위의 논자들인 김규동, 김경린, 조향 모두 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미지는 이미지즘의 주창자인 에즈라 파운드가 정의한 지적, 정적 복합체로서 현대인의 복잡한 경험과 기하학적인 도시문명을 형상화해 낼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미지의 중시는 현대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모더니즘 정신의 방법적 구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지적 이미지즘의 시작 태도는 30년대 문명 비판적 성격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다만 30년대 문명비판이 그 형상화에 있어서 당시 현실과는 유리된 채 피상적인 것으로 흘러갔던 것에 반해 50년대 주지적 이미지즘은 보다 전쟁으로 인한 한계의식과 절망이 잘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문명비판적 이미지의 형상화도 일정 부분 피상적이고 관념화돼 본질적인 현대성 비판과 역사적 전망에 대해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이미지의 생성에 관련하여 수사법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는데 직유가 서술적 설명이어서 평탄하다면 은유는 표현의 긴축을 가져와 조형성 창출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은유의 현대성을 주장하기도 한다.<sup>26)</sup>

### 3-3. 데뻬이즈망의 미학과 몽타지 기법

그 다음 50년대 모더니즘의 독특성으로 주로 논의가 되던 것이 슈르리얼리즘론이다. 이 논의는 30년대 李箱과 三四문학의 슈르문학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어 50년대 모더니즘론의 심도를 더한다. 주로 조향과 이봉래에 의해 그 내용이 개진되는데 모두 파편화된 현대문명에 의해 분열된 인간의 자의식을 표출하는 독특한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조향에 따르면 현대시의 방법론은 여태까지 〈현실원칙〉에 대한 〈추상 원칙〉과 〈쾌락 원칙〉의 시대적인 勝勢에서 벗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sup>27)</sup> 여기서 추상원칙은 20세기 첫머리의 입체파 이후 그림에 있어서의 〈절대공간〉 탐구의 방법론으로서 적용된 원칙이고, 쾌락 원칙은 현대의 심리학 곧 〈정신분석학〉에서 얻은 원칙이다. 즉

26) 김경린의 앞의 글과 이어령의 〈은유법론고〉(「문학예술」, 1956.12), 박이문의 〈현대시와 메타휘〉(「시와 비평」, 1957.5) 참고.

27) 조향, 현대시론抄, 「문학」, 1959. 10, pp. 26~27.

이러한 말은 모순과 비합리로 가득찬 현실의 공간을 떠나 순수한 의식공간, 곧 절대 공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식의 공간에 대한 추구, 그것은 바로 난삽한 현실의 구속을 깨뜨리고 인간의 원초적 자유를 갈구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의 양상이다.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휴머니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새로운 형식적 실험과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현실주의 기법이고 정신이다. 50년대 초현실주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조향은 데뻬이즈망 기법을 들고 있다.

거기(저자의 시 「바다의 층계」-필자 주)엔 아무런 현실적인, 일상적인 의미면의 연관성이 전연 없는, 동떨어진 사물끼리가 서슴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존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관계를 박탈해 버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데뻬이즈망 depaysement>이라고 한다.<sup>28)</sup>

이 데뻬이즈망은 하나의 문체나 단어가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엉뚱한 장소로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 옮겨놓는 것을 말한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행과 행, 연과 연이 단절의 구조를 형성시키고 원거리 연상이 경이감을 낳는다. 즉 데뻬이즈망에서의 단어와 단어는 정서적 유사성이 아니라 상반성의 병치, 곧 큐비즘의 동시동존성, 보들레르의 ‘반대되는 것의 매혹’과 같은 상반성의 독특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sup>29)</sup> 이러한 데뻬이즈망의 수법은 “여태까지의 낡은 언어 결합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실험> 해 보는 것이며,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것”<sup>30)</sup>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때의 데뻬이즈망은 모더니즘 문학이 갖는 소외효과, 그리고 유우머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유우머의 미학이란 일상적 존재의 현실로부터 정신을 일탈시켜 환상의 혼합에 의한 기괴한 새로움을 주고 존재의 환각적 성질을 부여하는 정신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뻬이즈망의 미학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서 50년대 모더니즘

28) 조향, 데뻬이즈망의 미학, 앞의 책, p. 417.

29) 문광영, 한국 슈르리얼리즘시의 표현기법론에 관한 소고, 「인천교대논문집」 제19집, 1985, p. 171.

30) 조향, 현대시론초, 앞의 책, p. 25.

론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법과 이런 자유연상에 의해 발생하는 이미지를 폭력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몽타지 기법이 있다. 자동기술법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고의 비타산적 활동에 신뢰를 둔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순수사고 활동을 의미하며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이나 훗설의 '현상학적 판단중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연원하는 모더니즘의 한 기법으로서 현실원칙을 무시하고 꿈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서 종래 볼 수 없는 새로운 미학을 창출한다. 또한 몽타지 기법(콜라주 기법이라고도 함)도 성질이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사물을 병치 혹은 결합시켜 종래 평면적 단선적 기법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대 문명인들의 낯설고 소외되어 있는 체험을 형상화하기 위해 쓰여진 것인데 그 노력은 효과는 소외효과, 새로운 전체성 노정, 의미의 박탈, 단순한 충격, 동시성의 체험, 표현매체의 공간화와 시각화 등으로 꼽을 수 있어 분열되는 현대인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데빠이즈망의 미학을 추구함으로 인해 50년대 모더니즘론에 자주 거론되는 것은 난해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조향을 비롯한 50년대 모더니즘론자들은 이 난해성을 현대성의 한 양상으로 긍정하면서, 오히려 자의식의 발달과 복잡한 현대적 삶을 표현하는 복잡성의 기교로서 그 특성을 높이 평가하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sup>31)</sup>

#### 4. 결 론

이상 1950년대 모더니즘 문학운동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첫째, 5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30년대 모더니즘이 갖는 피상성과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보다 현실성과 현대성이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역사적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현대인의 병리학적 세

31) 이봉래의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김경린의 <현대시의 제문제> 참고.

계와 국제문학 발전의 코스로서 범세계성 인식 확보에 치중하였다. 셋째, 청록파등 리듬 위주의 시문학을 비판하고 지적 이미지 중심의 문학관을 확립하였다. 넷째, 현대시의 난해성을 시대적 변화와 방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란 점을 해명하여 주었다. 다섯째, 모더니즘시에 나타난 소외 효과와 유유머 등의 미학은 현대성을 해명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미학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50년대 모더니즘 논의는 문학을 너무 서정주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으로 양분해 보려함으로 인해 문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였다. 또 모더니즘 문학이 지향해 나갈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논의 자체가 우연성과 신기성에 많이 기대는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50년대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문학을 범문단적으로 확대시켰으며 모더니즘 논의에 대한 심도와 박차를 본격적으로 가하였고 6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할 것이다.